

■ 2강 전래동요, 민요를 활용한 소고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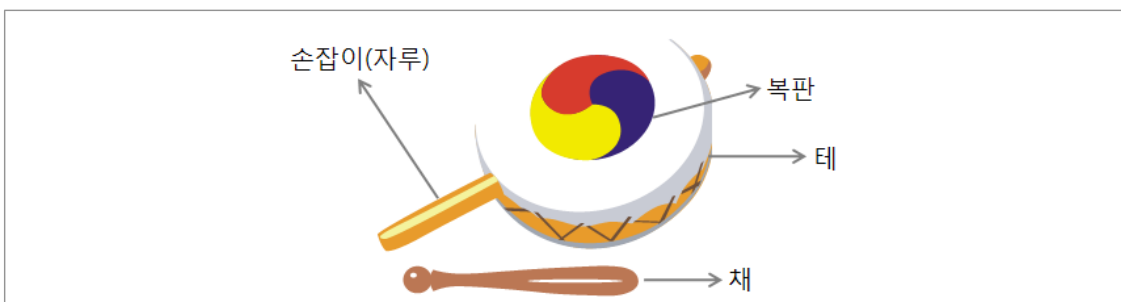
1. 소고에 대하여

1. 소고의 유래

소고는 대개 손잡이가 달린 약 지름 21cm 정도의 작은 북을 말한다. 농악에서는 지역에 따라 소고와 벽구, 버꾸 등의 이름을 혼용하기도 하고, 소고보다 좀 더 작은 북을 만들어 그것을 벽구, 버꾸 또는 법고라고 하기도 한다. 선소리패의 산타령이나 남도소리꾼들의 잡가판에서도 소고가 사용된다. 또한 민속춤 가운데 소고를 이용한 소고춤도 있다

특히 상모(象毛) 달린 벵거지나 고깔을 쓴 농악패들이 양손에 북과 북채를 갈라 쥐고 경쾌하고 날렵하게 소고춤을 추는 모습이 떠오를 만큼 춤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여러 명의 소고재비들이 바람개비처럼 연풍대를 돌거나 앞은뱅이걸음으로 재주를 보이는 대목은 물론이고, 농악 장단에 맞춰 팔을 전후좌우로 벌렸다 오므렸다 하면서 소고를 두드리는 등, 농악 판에는 소고가 들어가야 풍성하다. 그런가 하면 소고가 더없이 잘 어울리는 소리판도 있다. 지금은 이런 놀이판을 공연장에서나 볼 수 있지만, 예전에는 소고를 치며 소리하고 춤을 추는 것이 서민들의 생활에 가장 가까이 있던 볼거리였다.

2. 소고의 구조와 명칭



3. 소고의 구음(口音)과 표기법

구음	치는 방법	부호	음표
쿵(딩)	채로 복판을 친다	○	↓
딱	채로 테를 친다.		↓

4. 소고 잡는 자세(운지법)

교사 : 소고 준비(차렸)

어린이 : 허이(얏)



<앞면>



<옆면>

II. 전래동요와 함께 하는 소고놀이

전래동요 소고놀이 1

동지팥죽

24절기(二十四節氣)란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한 해를 스물 넷으로 나눈 것으로, 봄을 알리는 입추부터, 여름날 낮의 길이가 가장 긴 하지, 겨울의 무턱을 알리는 입동, 그 중에서도 '동지' 일년 중에 밤이 가장 긴 날입니다.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동짓날을 '아세(亞歲)'라 했고, 민간에서는 흔히 '작은 설'이라 하였다고 한다. 태양의 부활을 뜻하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설 다음 가는 작은 설의 대접을 받은 것이다. 그 유풍은 오늘날에도 여전해서 '동지를 지나야 한살 더 먹는다.' 또는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살 더 먹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짓날에는 팥을 고아 죽을 만들고 여기에 찹쌀로 단자(團子)를 만들어 넣어 끓입니다. 단자는 새알만한 크기로 만들기 때문에 '새알심'이라 불렀습니다. 팥죽을 다 만들면 먼저 사당에 올리고 각 방과 장독, 헛간 등 집안의 여러 곳에 담아 놓았다가 식은 다음에 식구들이 모여서 먹었습니다. '동지팥죽' 노래는 동지에 관한 이야기, 가족끼리 킁킁밤 팥죽을 먹으며 지내는 이야기를 흥겨운 동살풀이 장단의 노래입니다.



1. 악보

동지 팔죽

동살풀이

동 지 팔죽먹고 나 이 한 살 더 먹 자 동 지 팔죽먹고 나 이 한 살 더 먹 자

일 년 중 에 밤 이 제 일 긴 날 동 지 팔죽먹고 나 이 한 살 더 먹 자

일 년 중 에 낮 이 제 일 긴 날 동 지 팔죽먹고 나 이 한 살 더 먹 자

할 머 니 도 한 그릇 나 도 한 그릇 동 지 팔죽먹고 나 이 한 살 더 먹 자

온 집 안 에 구 수 한 팔 죽 냄 세 동 지 팔죽먹고 나 이 한 살 더 먹 자

2. 소고 놀이(앉아서)

노랫말	동 작
동지 팔죽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자	소고복판과 테 치기 쿵쿵 딱딱딱딱 쿵쿵쿵쿵 딱딱딱
동지 팔죽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자	소고복판과 테 치기 쿵쿵 딱딱딱딱 쿵쿵쿵쿵 딱딱딱
일년 중에 밤이 제일 긴 날	소고와 소고 채 순서로 탑을 쌓듯이 포갠다. 소고 두 번 쿵쿵 치고 양팔을 옆으로 뻗는다.
동지 팔죽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자	소고복판과 테 치기 쿵쿵 딱딱딱딱 쿵쿵쿵쿵 딱딱딱
일년 중에 낮이 제일 짧은 날	소고와 소고 채 순서로 탑을 쌓듯이 포갠다. 양팔을 크게 벌렸다가 양팔을 좁게 모은다.

동지 팔죽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자	소고복판과 테 치기 쿵쿵 딱딱딱딱 쿵쿵쿵쿵 딱딱딱
할머니도 한 그릇 나도 한 그릇	소고 바닥치기 두 번(오른쪽) 소고 복판 두 번 쿵쿵 (가운데) 소고 바닥치기 두 번(왼쪽) 소고 복판 두 번 쿵쿵 (가운데)
동지 팔죽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자	소고복판과 테 치기 쿵쿵 딱딱딱딱 쿵쿵쿵쿵 딱딱딱
온 집안에 구수한 팔죽냄새	소고와 소고 채를 모아 지붕모양을 만들고 소고와 소고 채를 모아 가슴 앞에서 빙글빙글 돌린다
동지 팔죽 먹고 나이 한 살 더 먹자	소고복판과 테 치기 쿵쿵 딱딱딱딱 쿵쿵쿵쿵 딱딱딱

3. 동살풀이 장단

① 동살풀이 구음

♩ = 110-120

덩 따 쿵 따 쿵 따 쿵

덩 따 따 따 쿵 따 쿵

② 동살풀이 말놀이

♩ = 110-120

을 콩 질 콩 전 대 콩

지 - 건 너 꿀 껌 떡

3. 24절기 표

계절	절기	특징	음력
봄 春	입춘(立春) 우수(雨水)	봄의 문턱 봄비가 내림	정월
	경칩(驚蟄) 춘분(春分)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깰 낮이 길어지기 시작함	미월
	청명(淸明) 곡우(穀雨)	봄 농사의 준비 농삿비가 내림	삼월
	여름 夏	입하(立夏) 소만(小滿)	여름의 문턱 본격적인 농사의 시작
망종(芒種) 하지(夏至)		씨뿌리기 낮이 연중 가장 길	오월
소서(小暑) 대서(大暑)		여름 더위 한 차례 여름 큰 더위	유월
가을 秋	입추(立秋) 처서(處暑)	가을의 문턱 더위가 가섬	칠월
	백로(白露) 추분(秋分)	맑은 이슬이 내림 밤이 길어지기 시작함	팔월
	한로(寒露) 상강(霜降)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함 서리가 내리기 시작함	구월
	겨울 冬	입동(立冬) 소설(小雪)	겨울의 문턱 겨울 강설한 차례
대설(大雪) 동지(冬至)		겨울 큰 눈이 올 밤이 연중 가장 길	동지
소한(小寒) 대한(大寒)		겨울 추위 한 차례 겨울 큰 추위	섬달

해노래

해야 해야~ 나오 너라~ 김치 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며 나오 너라~ 나이 드신 분들은 모두 아시는 노래입니다. 한여름에 차디찬 골짜기 개울가에서 동무들과 알몸으로 신나게 물놀이를 하다가 추워지면 넓적한 바위를 찾아 드러누웠습니다. 햇살에 달궈진 바위는 온몸을 따뜻하게 그야말로 편안하게 녹여줍니다. 어린 시절엔 이런 것이 천국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지요. 다들 살포시 잠들다가도 어느 순간 이구동성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해야 해야 나오너라. 김치 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 치며 나오너라~.....바로 햇님이 구름속으로 모습을 감추는 그 순간이지요. 구름이 햇님을 가리는 찰나의 그 순간 온몸으로 느껴지는 소름과 한기! 또한 경험해보지 않으면 잘 모르겠지만 한겨울 허허벌판의 거센 눈보라 앞에 알몸처럼 느껴집니다. 노래 몇번이면 신기하게도 햇님이 다시 찾아오곤 했지요. 요즘은 비가 많이 옵니다. 태풍도 많이 불지요.우리나라 뿐이 아니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말이죠. 많은 인명피해도 나고 힘들게 가꾸어온 농작물도 사라지고 이럴 때 애나 어른이나 다 같이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닐까요?



1. 악보

해노래 1

조금 빠르게 ♩ = 116

전래동요 / 백창우 작곡

땅땅 말라라 꼬치꼬치 말라라 땅땅 말라라 꼬치꼬치 말라라

해야 해야 물 떠먹고 얼른 나와 비 춰라

땅땅 말라라 꼬치꼬치 말라라 땅땅 말라라 빨리빨리 말라라

해노래 2

조금 빠르게 ♩ = 38

전래동요 / 백창우 작곡

해야 해야 불은 해야 북을 치며 나오너라

해야 해야 불은 해야 정을 치며 나오너라

해야 해야 불은 해야 구름속을 나오너라

해야 해야 불은 해야 구름속을 나오너라

김칫국에 밥 말아 먹고 장구치며 나오너라

복죽개로 물 떠먹고 쇠를치며 나오너라

앞문다 열어놓고 어서어서 나오너라

복장구 들러 배고 어서어서 나오너라

2. 소고 놀이(서서)

노랫말	동작
전주	소고 북판을 배꼽에 대고 채는 등 뒤에 대고 고개로 호흡을 한다.
땅땅 말라라 꼬치꼬치 말라라	오른쪽 아래로 팔을 뻗어 북판과 테치기 쿵쿵 따따 ×2

땅땅 말라라 빨리빨리 말라라	왼쪽반복
해야해야 물떠먹고/ 얼른나와 비춰라	소고 복판으로 얼굴을 가리고 채를 든손은 오른쪽으로 편 상태로 왼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돈다./ 소고든 팔을 동그랗게 편다.
땅땅 말라라 꼬치꼬치 말라라 땅땅 말라라 빨리빨리 말라라	오른쪽 아래로 팔을 뻗어 복판과 테치기 쿵쿵 따따 ×2
땅땅 말라라 꼬치꼬치 말라라 땅땅 말라라 빨리빨리 말라라	쿵 쿵 오른쪽으로 한 바퀴 돌면서 쿵쿵쿵, 쿵 쿵 왼쪽으로 한 바퀴 돌며 쿵쿵쿵
간주	팔 들어 어깨사위
해야 해야 붉은 해야 / 북을 치며 나오너라	소고와 채를 차례로 몸 안쪽으로 등글게 했다 뻗기/ 쿵 쿵쿵 쿵따 따따 따
김치국에 밥말아먹고 / 장구치며 나오너라	소고를 몸 앞에 가로로 놓고 채를 위로 올려 돌리면서 내리기/쿵 쿵쿵 쿵따 따따 따
해야 해야 붉은 해야 징을 치며 나오너라	소고와 채를 차례로 몸 안쪽으로 등글게 했다 뻗기/ 쿵 쿵쿵 쿵따 따따 따
북죽개로 물떠먹고 쇠를 치며 나오너라	소고를 몸 앞에 가로로 놓고 채를 위로 올려 돌리면서 내리기/쿵 쿵쿵 쿵따 따따 따
해야 해야 붉은 해야 구름 속을 나오너라	소고와 채를 차례로 등글게 해서 얼굴을 가리고 굴신/ 팔 들고 어깨춤
앞뒤문다 열어놓고 어서어서 나오너라	소고와 채 팔을 앞으로 뻗어 굴신 2번/ 쿵 쿵쿵 쿵따 따따 따
해야 해야 붉은 해야 구름 속을 나오너라	소고와 채를 차례로 등글게 해서 얼굴을 가리고 굴신/ 팔 들고 어깨춤
북, 장구 둘러매고 어서 어서 나오너라	소고와 채 팔을 어깨에 얹고 굴신2번/ 쿵 쿵쿵 쿵따 따따 따
후주	어깨춤, 쿵 쿵쿵 쿵따 따따 따

Ⅲ. 민요와 함께 하는 소고놀이

1. 민요

민요는 우리 민족의 삶 속에서 생겨나고 전해 내려오는 전통적이고 서민적인 노래이다. 민요는 어느 특정한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을 통해 오르내리다 자연스레 만들어졌으므로 많은 훈련과 세련된 기교가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소박한 노래이기도 하다. 또한 그 곡조나 가사는 어느 한 형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부르는 사람에 따라, 불러지는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바뀌어 부를 수 있다. 이렇듯 민요는 민중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생겨나고 전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민족성이나 정서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예술인 것이다.

2. 민요의 특징과 지도법

① 장단을 밝고 간다.

민요는 장단에 기초하여 불린다. 장단의 고유한 박자의 흐름에 따라 선율이 엮어져서 노래가 불러지기 때문에, 어느 노래를 부르더라도 장단을 이해할 때만이 제대로 부를 수 있다. 따라서 장단의 특징에서 보인 호흡의 원리를 기초해야 하며, 첫 박이 대체로 강한 특성을 지닌다. 장단의 흐름에 기초하여 노래를 부르는 것은 곧 우리의 음악문화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다. 또한 반주는 반드시 장구로 해야 한다.

② 이면을 살려 직설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노래 가사에 담겨 있는 의미를 이면(裏面)이라고 한다. 노래를 부를 때 가사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여야 그 멋이 살아나는 것이다. 모양이 큰 것을 소리 낼 때는 입과 목소리를 크게, 작은 것은 작게, 넓은 것은 넓게, 깊은 것은 깊게, 뾰족한 것은 뾰족하게 표현해야 한다. 이렇듯 이면을 살려서 사실적으로 표현할 때 노래 부르기를 통한 감정표현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③ 구비전승되었다.

민요는 악보와 같은 일정한 기보체계를 통해 전승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르내리며 이어져 왔다. 그렇기 때문에 민요는 부르는 사람에 따라 각기 다르게 불리기도 하며, 같은 노래이더라도 불러지는 상황과 시기에 따라 그 느낌이 다를 수 있다. 이는 우리의 노래문화가 정해진 틀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상황에 열려있다는 의미이며 이것이 민요의 강한 생명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민요의 가사는 유아의 정서에 맞는 소재로 새롭게 바뀌어 부를 때 보다 생동감 있는 노래가 될 것이다.

④ 메기고 받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민요를 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부르는 받는 부분과, 한 사람이 그 내용을 달리하며 각각

부르는 메기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유의하며 불러야 한다. 특히 메기는 부분은 부르는 사람이 그때 그때 다른 내용을 표현함으로써 보다 흥겨운 노래부르기가 될 수 있다.

⑤ 노래는 시김새가 발달되어 있다.

시김새는 ‘식히다, 삭히다’에서 연유한 말이다. 발효한 음료를 ‘식혜’라고 하듯이 시김새는 노래를 맛깔스럽고 구수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하는 음악적 기법이다. 어느 부분에서는 굽게 떨기도 하고, 좀 더 높은 음에서 가늘게 떨기도 하며, 뽀아 내다 아래로 흘러내리는 등 민요는 다양한 시김새가 발달되어 있다. 서양의 음악이 화성에 기초한 ‘공간적’예술성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민요는 시김새에 기초한 ‘시간적’예술성을 추구한다. 이 시김새는 각 지역별로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나며 지역의 독특한 시김새를 ‘토리’라는 말로 표현한다. 민요를 부르기 전, 지역의 토리에 기초한 대표적인 시김새를 충분히 연습을 해야 보다 효과적으로 부를 수 있다.

소고놀이 3

천안삼거리

1. 악보

천안삼거리

굿거리



천안 - 삼거리 흥 응응응 능수야 버들은 - 흥 응응
 제 밭에 겨 - 워 서 - - - 축늘어졌구나 흥 -
 에 루 - 와 에 루 - 와 흥 - - - 성화가 났구나 - 흥 - -

2. 소고 놀이(앉아서)

노랫말	동작
천안 삼거리 흥 응 응 응 능수야 버들은 응 응 응	콩 치고 채를 어깨위에 놓고 고개를 한번 끄덕×2
제멋에 겨워서 축 늘어 젖구나 흥	콩콩콩 따따따 콩콩콩 따따따 콩 치고 팔을 벌리고 어깨를 들썩 2번
에루와 에루와 흥 성화가 났구나 흥	오른쪽 방향 땅에 소고 테 한번 치고 복판 콩콩×2번 '흥'에 콩치고 팔을 펼치면서 왼쪽 방향 반복
간주	소고로 굿거리 장단 연주

3. 굿거리 장단

12/8

덩 기덕 콩 더 러 러 러 콩 기덕 콩 더 러 러 러

2

덩 따따콩 더 러 러 덩 따따콩 더 러 러

3

덩 따따콩 더 러 러 덩 따따콩 따

아라리가 났네	반대로 동일/ 채든 팔을 밑에 내렸다 올리기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오른쪽 왼쪽 꽃 사위 두 번 어깨춤 한번
정든임이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한발씩 앞으로 걸어나가며 쿵 쿵 쿵 따 따 따 2번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뻥긋	소고를 가로로 놓고 좌우로 흔들며 쿵 쿵 쿵 4번, 뒤로 가면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위에 반복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위에 반복
간주	쿵 쿵 쿵 따 따 따 반복하면서 돌씩 마주보기 소고와 채를 밑에서 위로 올리며 서로 쿵 6번 뒤로 나오며 자기소고 쿵 6번
날좀보소 날좀보소 날좀보소	둘이 소고를 올려 모아 한 바퀴 돌기
동지선달 꽃본 듯이/ 날좀보소	소고 위에 쿵 쿵 쿵 밑에 반대로 쿵 쿵 쿵 두 번 반복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마주보고 쿵 치고 소고 들며 왼 다리 오른쪽으로 사선으 로 뻗기 반대로 동일/ 앞에 보며 채든 팔을 밑에 내렸다 올리기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오른쪽 왼쪽 꽃 사위 두 번 어깨춤 한번

3. 세마치장단

세마치 장단

♩ = 90

덩 덩 따 쿵 따 더 덩 덩 따 쿵 따

더 덩 덩 따 쿵 따 더 덩 덩 딱